

“철학자 사유·불교수행 겸비해야”

한국칸트학회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



불교는 철학적인 종교라 불린다. <팔만대장경>이 문자의 형태를 갖춘 까닭에 심인(心印)을 전하고 있어도 인간의 사유를 막을 수 없는 까닭이다. 종교와 철학은 진리나 절대자 등 같은 대상을 바라보지만 태도는 다르다. 종교는 승경하는 마음과 동경의 태도를 갖고 진리를 영접하려 하나, 철학은 이론적 추리와 과학적 고찰을 통해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종교와 철학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만 가깝고도 먼 사이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종교는 뜨겁고, 철학은 차갑기 때문이다.

잘못 섞으면 미지근해져 뜨겁지도(종교) 차갑지도(철학) 못한 것이 돼 서로 비판만 주고받은 것이 지금까지의 학문 경향이었다. 이런 가운데 불교 수행법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통해 서양철학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한국칸트학회(회장 최인숙)는 12월 13일 동국대에서 ‘칸트철학과 불교철학의 소통’을 주제로 2008년 동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사진)는 주제발표 ‘불교에서 본 칸트 윤리학의 근본개념들’에서 “철학자들이 온전히 사유하려면 심신을 아

우르는 위빠사나 같은 불교 수행을 겸비해 수행의 경험을 철학에 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철학은 철학자의 위빠사나 체험을 담은 체계다. 하지만 어떤 철학도 사마타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교수의 견해다.

박인성 교수는 “철학자들은 사마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철학자들은 사마타를 기반으로 위빠사나를 해왔지만 사마타를 실제로 수습(修習)하지 못한 것이 박 교수가 지적한 철학자들의 문제점이다. 박 교수는 “철학자들이 위빠사나가 사마타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 체계 내에 사마타의 방법, 과정, 결과를 담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사마타 기능이 윤리학에 수용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는 있는 그대로 나누어 본다는 뜻이다. 사마타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삼마디(三昧)는 단순히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마타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박 교수는 “사마타를 하려면 산란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인식은 이것과 저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산란한 속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성유식론>에서 “산란함은 대상들에 대해 마음을 유평하게 하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 바른 정(定)을 장애하고 나쁜 해(惡慧)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산란은 나쁜 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산란은 삼매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박 교수는 “삼매를 얻어 산란함을 제거함이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바탕”이라 설명했다. 사마타는 들음, 생각함, 잊지 않음, 알아차림, 노력함 등 여러 계기들로 형성된다. 계기들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더해져 이뤄진다.

이에 대해 박인성 교수는 “사마타를 유지하며 사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칸트가 말한) 실천이성이 하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동일한 것이라면 이러한 동일함은 산란함 속에서 활동하는 의지가 아닌 고요한 속에서 활동하는 의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칸트가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고 말했다는 만큼 당위 개념은 칸트 윤리학의 중심 개념이다. 박 교수는 칸트 윤리학의 당위 개념 등을 통해 불교와 칸트 철학을 비교했다.

박인성 교수는 “불교도 칸트도 사유한다. 하지만 칸트와 불교의 사유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사마타 속에서 사유하며 사유 결과인 사유 체계에 사마타 체험을 담아놓기에 칸트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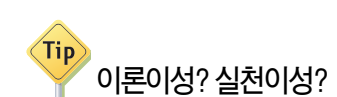
우리 기본은 쉽게 들뜨고 쉽게 가라 앉는다. 박 교수는 “심신이 불안

정한 상태에서 사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유는 논리적 사유”라며 “논리적 사유가 진정성을 얻어 합리성을 이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바로잡는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성 교수가 제시한 몸을 바로잡는 사유는 삼마디와 사마타를 유지하는 사유다. 불교는 삼마디와 사마타를 유지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개발돼 있다.

박 교수는 “삼마디와 사마타를 통한 사유행위를 칸트의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칸트는 불교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는 한자경 교수(이화여대)가 ‘경험세계의 가상성’을, 정승석 교수(동국대)가 ‘입보의 논리와 김진 교수의 요청’을, 배의용 교수(동국대)가 ‘불교 유식학과 초월 관념론에서 질료의 아포리아와 주판의 이중성’을, 김진 교수(울산대)가 ‘칸트와 불교’를, 신구탁 교수(연세대)가 ‘선불교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발표했다.

주동섭 기자 cetania@buddhapia.com



이론이성(理論理性)은 칸트 철학에서 도덕적 능력인 실천이성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성의 이론적 측면, 즉 인식을 주로 하는 능력이나 생각을 말한다.

실천이성(實踐理性)은 칸트 철학의 기본 개념이다. 도덕적인 실천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과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능력을 이른다.

경주 사천왕사 가람배치 밝혀져

2기의 목탑 동서 배치한 쌍탑식 가람형식



경주 사천왕사지 동탑지에서 발견된 녹유전.

전통적인 통일신라시대 가람인 경주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위치와 당시 정방형 쌍탑 기반부 사방에는 녹유전이 배치됐던 사실이 밝혀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는 12월 10일 경주 배반동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천왕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19년(679년) 창건된 사찰로 2기의 목탑(木塔)을 동서로 배치한 쌍탑식(雙塔式) 가람형태를 갖고 있다. 전 문가들은 “사천왕사지는 이보다 몇 년 늦은 신문왕 2년(682년) 창건된 감은사동·서 삼층석탑과 함께 당시의 건축, 미술 수준과 한국 사찰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적”이라 말한다.

행사에서 연구소 측은 “동탑지를 비롯해 동·남 회랑 양 옆의 기다란(집제지, 중문지, 추정단석지) 불교의례를 행하는 장소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돼 사천왕사지의 전체적인 가람배치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 측은 “현재 기반만

남은 서탑터에 이어 동탑터를 발굴·조사한 결과 두 탑 모두 같은 방식으로 ‘녹유사천왕상전(祿油四天王像壇) 탑의 사방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녹유사천왕상전은 사천왕이 악귀를 제압한 모습이 새겨진 녹유전(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이다.

연구소 이주현 학예사는 “강당 우측에서 감은사지와 같은 정방형 건물지가 확인돼 관계 연구자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 말했다. 이 학예사는 “사천왕이 목탑 사방을 경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녹유전

으로 목탑 기반부 사방을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연구소는 12월 11일 경주 보문단지 내 드림센터에서 ‘신라 후국의 열원 사천왕사’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술행사에는 녹유전을 두고 강우방 前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주장하는 사천왕상과 문명대 명예교수(동국대)의 팔부신중설이 팽팽한 가운데 임영애 교수(동국대)가 신왕(神王)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주동섭 기자

분황사, 황룡사 버금가는 대찰

경주문화재연구소 현장설명회



경주 분황사 주자장 부지에서 발굴한 유구 전경.

신라 선덕여왕 3년(634년)에 창건됐던 경주 분황사가 황룡사 못지 않은 큰 사찰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 이하 연구소)는 12월 12일 경주 분황사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분황사 발굴조사 내용 등을 발표했다.

1990년부터 경주시와 분황사 발굴조사를 해 온 연구소는 최근 분황사 진입로와 주자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조사했다.

연구소 측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1차 중건시기의 중문지(中門址)와 남회랑지(南廻廊址) 등 대

형 건물지 4동과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석축 배수로(排水路) 1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문지의 소재와 함께 형태도 밝혀졌다. 연구소 측은 “중문지는 전체 길이가 12.63m로 가람의 핵심인 석탑 및 금당과 중문이 모두 남북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분황사는 전형적인 평지가람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발견된 남회랑지를 통해서도 분황사의 전체 규모가 드러났다. 분황사의 좌우대칭형 가람배치를 감안하면 회랑의 동서 너비는 138.4m

에 달한다. 황룡사의 176m에 버금가는 규모다. 연구소 이주현 학예사는 “분황사에서도 복원 구조의 회랑이 확인됐다는 점은 폼자형 삼금당식을 배치한 장건가람과 함께 한국 고대건축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발견”이라 강조했다.

주동섭 기자

“붓다 자비와 예수 사랑으로 종교 화합”

한국종교학회 종교갈등 해법 모색

2008년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종교편향’이었다. 종교편향 시비로 드러난 종교갈등의 해법이 종교간 화해와 상생, 신뢰와 이해인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런 가운데 붓다의 ‘자비의 웃음’과 예수의 ‘사랑의 웃음’을 회복해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종교학회(회장 양은웅)는 12월 13일 서울대에서 ‘불교와 기독교 갈

등과 충돌’을 주제로 2008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최종석 교수(금강대)는 주제발표 ‘붓다와 예수의 웃음’을 통해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길을 붓다와 예수의 웃음에서 찾자고 제안했다.

붓다는 웃음을 중요시했다. 무명을 깨친 붓다는 삼독을 극복해 화를 낼 수 없는 존재로 <경전>에서 붓다는 끊임없이 웃고 있다. <증일아합경>에서 붓다는 “웃을 수 있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을 샅된 사람”이라 했을 만큼 웃음을 중요시했다.

예수는 웃지 않았다. <신약성서>에 예수가 가끔 눈물 흘렀다는 기록만 보일 뿐 예수가 주위사람에게 농담을 해 웃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예수는 항상 상징과 비유로 말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 구절 하나하나를 고지식하게 집착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최종석 교수는 “예수의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자기성찰과 자기 비움(無化, 케노시스)에서 오는 완성

된 사랑의 웃음”이라 말했다. 이어 “붓다의 웃음은 무아(無我)의 지혜인, 모든 존재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성찰에서 오는 자비의 웃음이요, 해탈의 웃음”이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예수와 붓다의 웃음은 현재 종교의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준다”며 “종교간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는 현대사회에서 예수의 웃음과 붓다의 웃음을 기억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석 교수는 “지혜와 해방의 웃음을 회복해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그 입장이 돼 웃을 때 종교간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주동섭 기자

공 고

대한불교삼론종은 2007년 7월 4일 현대불교신문 635호에 연화사 성일 이남근에 대하여 체탈도첩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남근은 2007년 1월 31일 현대불교신문 613호로 대한불교삼론종 탈종공고를 한 상태였다. 위 체탈도첩 공고에는 위와 같은 탈종공고가 고려되지 않았다.

2008년 12월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공 고

- 1) 회욕적 행위로 산문 출승된자들이 참회할 생각은 많고 불만만을 앞세워 도당을 만들어 작당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종단을 와해시키려는 무리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해중 행위자들에게 현혹되어 동조치 마시고 더욱 애증하는 마음으로 굳건한 종단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 2) 대표자 속속(관음정사) 조동락(민호)는 검찰에서 종단과 총무원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그리고 상해(폭행) 죄명으로 처분된 자입니다.
- 3) 경북(도선사) 김정열(운산), 경기(축령사) 기복성(혜성), 경기(약수사) 강창래(설오), 경기(상원사) 유봉열(법경)스님은 참회하지 아니하고 해중행위자들과 동조하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 4) 속속(관음정사) 조동락(민호), 서울(대원정사) 엄동일(남오), 경기(정혜사) 이정상(법오), 경북(달마사) 손용구(반공), 서울(사찰없음) 정후국(대오), 천안(법계사) 신근식(법광)은 대한불교 총화종에서 해중행위로 체탈도첩, 제적된 자로 우리 종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공고한다.

2008년 12월 일

대한불교총화종

중앙총회의장 최만재
상벌위원장이만오
총무원장 전남정